



3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 준결승전에서 안산이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단식 첫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하며 16강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양궁 안산·배드민턴 안세영 '금메달' 향해 순항

광주여대 안산, 개인전 결승 진출·나주출신 안세영 단식 16강 안착
오늘 우상혁 높이뛰기 금 도전·축구 황선홍호 우즈베크 준결승전

지역 출신 안산(광주여대)과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 최강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한국 양궁 리커브 여자대표팀의 안산은 임시현(한국체대)과 함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전 결승에 나란히 진출해 '집안 싸움'을 벌인다. 안산은 3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 준결승에서 중국 중국의 하이리간을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안산은 하이리간을 상대로 세트 점수 7-3(30-30 28-25 28-28 28-30-25)으로 제압했다. 첫 엔드에서 '퍼펙트'를 기록한 두 선수는 2엔드부터 승부에 나섰다. 안산은 2엔드를 가져왔고, 3엔드와 4엔드를 동점으로 마무리해 5-3으로 앞섰다. 침착함이 장점인 안산은 마지막 5엔드에서 모두 10점을 쫓으며 '도쿄올림픽 3관왕'의 면모를 보였다. 광주 체육중·고 출신인 안세영(삼성생명)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2관왕을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32강에서 세계 344위 푸이츠와(마카오)를 경기 시작 23분 만에 2-0(21-9 21-5)으로 눌렀다. 64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안세영은 이날 개인전 첫 경기에서 열 수 정도 아래인 푸이츠와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2세트를 합쳐 14점밖에 내주지 않았다. 안세영은 4일 열리는 16강에서 205위 압둘라자크 파티마스 나바하(몰디브)를 상대한다. 한편,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우상혁 역시 한국 육상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고자 비상을 준비한다. 우상혁은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현역 최고 점쳐이자 라이벌인 무타

즈 에사 바르심(카타르)과 한 판 대결을 펼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은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베퐀는다. 2020 도쿄 올림픽 4위,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대회 우승, 실외 세계선수권 2위, 그리고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등 굵직한 대회에서 화려한 성과를 낸 우상혁의 기량과 관록에 크게 기대를 건다. 중국을 2-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과 오후 9시 항저우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6회 연속 4강에 올라 대회 3연패에 도전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래 29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왔다. 8강전까지 23골을 몰아친 태극전사의 막강한 창과 4경기에서 두 골만 허용한 우즈베키스탄의 탄탄한 수비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우즈베키스탄을 물리치면 한국 축구는 7일 밤 9시 일본-홍콩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소프테니스는 오전 11시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지는 남녀 단체전 금메달 석권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소프테니스는 이번 대회에 걸린 5개의 메달 중 남녀 단체전과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 3개를 목표로 걸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여자 핸드볼 '만리장성' 넘어 결승 진출

30-23 중국 꺾고 은메달 확보
일본과 대결 3회 연속 금 도전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저장 공상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4강전 중국과 경기에서 30-23으로 이겼다. 2014년 인천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의 결승 상대는 이어 열리는 일본과 카자흐스탄 경기 승자다. 결승은 5일 오후 6시(한국시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아시아 최강인 한국은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8차례 대회 가운데 7번을 우승했다.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때는 2010년 광주여대 대회 동메달이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이날 전반 초반 류은희(횡가리 교리)의 7m 스로 2개와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의 득점 등으로 5-1까지 앞서며 기세를 잡았다. 그러나 중국 역시 전반 혼자 4골을 넣은 진명칭을 앞세워 꾸준히 추격, 전반을 15-14로 1점만 뒤진 채 마쳤다. 중국은 후반 첫 공격에서 공레이의 득점으로 15



3일 중국 항저우 저장 공상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준결승 중국과의 경기. 후반 김보은이 슈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15 동점을 만들며 기세를 올렸다. 체육관을 메운 중국 홈 팬들의 응원 소리도 점점 커졌다. 한국은 강경민과 김선화(대구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17-15를 만들어 한숨을 돌렸고, 류은희가 후반 8분경에 20-17, 3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려 격격을 벌렸다.

중국이 다시 2골 차로 따라붙은 후반 10분경에는 김선화와 김보은(삼척시청)이 연달아 상대 골문을 열고 4골 차를 만들며 승기를 굳혀갔다. 우리나라는 이날 주포 류은희가 7골, 이미경(부산시청)이 6골을 넣었고, 강경민도 5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남녀 카약 4인승 500m 나란히 은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나라 남녀 카누 스피드 대표팀이 나란히 카약 4인승 5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조광희, 조현희(이상 울산광역시청), 장상원(인천광역시청), 정주환(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푸양 수상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결승전에서 1분25초006을 기록, 9개 팀 중 2위를 차지했다. 최대 경쟁자였던 중국 팀(부팅카이-왕충강-장동-둥이)은 1분23초859의 기록 금메달을 따냈다. 우리나라와 기록 차는 1초147이다. 우리나라는 직전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조광희-장상원 조(1분37초690)는 전날 열린 남자 카약 2인승 500m 결승에서 중국의 부팅카이

-왕충강 조(1분36초658)에 1초042 차로 밀려 금메달 대신 은메달을 따냈다. 2014, 2018 아시안게임 당시 카약 1인승 200m에서 연이어 우승한 조광희는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노렸으나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만 2개를 목에 걸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조광희의 주 종목인 카약 1인승 200m가 카누 스피드 종목에서 빠졌다. 뒤이어 열린 여자 카약 4인승 500m 결승에서도 최란-이하린-이한솔(이상 부여군청)-조신영(대전광역시체육회) 조가 1분42초87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1위 중국 팀(리둥인-인명데-왕난-쑤원·1분39초960)보다는 2초910 늦었다. 한국 카누 스피드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쟁겼다. /연합뉴스

대만에 진 야구, 태국에 17-0 콜드게임승

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
한국 야구대표팀이 약체 태국을 대파하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의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2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에 17-0,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쳤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대만-홍콩전 결과와 관계없이 대만에 이어 B조 2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5일 오후 1시(한국시간) A조 2위와 슈퍼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고 6일 오후 1시 A조 1위와 두 번째 경기에 나선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대만전에서 기록한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임하며 슈퍼라운드 4개 팀 중 상위 2개 팀은 결승에 진출한다. /연합뉴스